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여름공동체생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공동체 휴가기간은 8월 2일(월)부터 17일(화)까지입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8월 14일(토)-16일(월)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 임시로 사용하던 건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순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0 호
2021년 8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영웅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요즘 한창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 지역이 훨씬 정도가 더하다는데,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갈고닦은 실력을 내보일 때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불꽃을 튀기듯 경쟁하고, 번쩍이는 메달들이 명예로운 세계의 정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세어보면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승부들도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스타가 우뚝 드러나고,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립니다. 카메라들은 놓치지 않고 단상에 올라서서 메달을 들며 환히 웃는 선수들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조명에 비친 그림자에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꽤 많은 종목에 출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전 종목에 출전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도 29개 종목에 238명이 출전합니다. 전세계에서도 14번째로 커다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의 모든 선수에게 같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실력자들과 상대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 기대되는 종목과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는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방송계의 타산이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부모님, 코치, 감독, 동료, 선후배, 심지어는 응원해주었던 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유명한 노벨상이나 영화제 등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상을 받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는, 도움을 받으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수들을 향한 관심은 그 주변으로도 넓게 퍼지게 됩니다.

올림픽 원정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수들이라고 하지 않고 선수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독, 코치, IOC 보조위원, 통역사, 책임자들(식사 담당, 보안 담당 등)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

많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의 협력으로 선수들은 실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종목은 다양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며, 말은 바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거슬리기 짝이 없는 존재였고, 기독교인들에겐 슈퍼스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편지를 쓰면서 여러 교회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바울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옆과 뒤에는 각 교회와 동료들의 지지와 헌신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듯이 바울의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습니. 그리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복음에 진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각 교회를 오가는 여행들에서도 동행자들이 있었으며, 곳곳에서 집으로 맞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신과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으로써 스테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16:18).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말아 하면서, 드러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교회는 영원무궁하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빛의 세력입니다. 그 안에서 지체들을 향한 순종과 헌신은 어느 때고 빛이 나며, 주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의 흔적이 많이 새겨진 손과 발, 거칠어진 피부와 입술, 이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본받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입니다. ”
<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일서 4장
제목 :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합시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5 220 304 294 299 218

1-6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더 큰 의미, 추론, 해석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믿어야 한다.

적용 : 세상 속의 것,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자.

7-1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사랑을 완성하신다. 사랑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한다.

적용: 우리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자.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13-21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해석: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시작된다.

적용 : 하나님의 계명(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대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자.

함께 사는 삶의 누림과 훈련

사랑방교회의 여름공동체생활의 특징은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방교회는 작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는 하던지 공동체성이 잘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동체성이란 '하나됨과 나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교회의 여러 공동체 생활은 '하나됨과 나눔의 삶'을 위한 '공동체 생활'이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순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아주 드물게 강의 같은 것- 어른과 아이가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방교회의 공동체생활 방식은 자유와 섬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 조화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여름공동체 생활은 인간관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드러낸 모습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비추어 주는 자신의 모습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와 원리를 배우고, 배려와 섬김을 배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자연 예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0년 정도사 지나면서 공동체적인 사고와 질서 그리고 자율이 교회 생활에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섬김의 삶을 위한 신앙적인 정리와 나눔 그리고 노동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 교인이 거의 텐트를 가지고 가서 야영을 했습니다. (중략)

여름공동체생활은 비교적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딱 짜인 수련회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텅 빈 시간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방 교인들은 그 시간들을 알아서 잘 보냅니다. 사랑방 가족은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모자란다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개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용한 곳을 참아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비쁜 일산 속에서 나누지 못한 삶과 언어를 이 시간을 통해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그대로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거의 모두 자율적으로 공동체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 집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정태일 목사.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사랑방교회의 여름 행사' (목회와 신학 1998.9)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일서 4 : 7-11 인도자
6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일서 5 : 11-12 인도자
438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정재훈목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일서 1 : 3 설교자
“ 사귀, 서로 사랑하십시오 ” 사랑방
〈 성찬식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먼저 그 나라와, 사랑하는 자들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아들을 모시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귀의 충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채워주십시오.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는 기쁨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사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귀를 가지기 바랍니다.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3a>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1b>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입니다.”<1c>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에 있는 주제절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서로 사귀’를 갖기 위해서라는 내용입니다.

사귀는 서로 사랑입니다. ‘사귀’의 원어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로서 친교, 교제, 사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의미를 표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안에서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생활을 위한 교훈에서는 ‘사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요일4:7-8> 또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경험한 사람이고, 교회가 이단의 유혹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에 장수하며 교회를 지도한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교회가 안과 밖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귀’과 ‘서로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도 신앙공동체로서 ‘사귀’과 ‘서로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7월 한 달간 주일예배 설교로 여름공동체생활을 대신하며, 신앙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한 달간의 메시지를 담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방공동체에 ‘사귀’와 ‘서로 사랑’이 깊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4:10> 가까운 사람,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멋쟁이학교 >

회장 엄하민 멋쟁이가 말하는 멋쟁이학교

[이나영] 회장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라.

[엄하민] 회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학생들만 힘든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노력도 하고, 공동심화도 준비하고, 부서일도 하고 그래서 나만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회장하니깐 선생님들이랑 아무래도 교류가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 우리는 선생님들이 내린 결정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왜 저런 선택을 하셨지.' 가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가까이서 지켜보면 '아 이게 아 우리보다 넓은 시야를 보고 그렇게 하신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김주은]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언니가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야?

[엄하민] 나는 성격? 나는 '내 내적인 부분의 반은 멋쟁이학교에서 만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어. 또는 공동심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사람들 의견 물어보고 맞춰가는 것. 조율하는 것.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대화하는 것. 이런 부분이 약했다고 생각했었고. 신

양도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멋쟁이학교 오면서 내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앞에 말했던 자신감과 이겨낼 수 있는 힘. 관계하는 부분.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배웠다고 생각해.

[이나영] 사실 이게 홍보의 목적도 있거든. 언니가 멋쟁이에서 지내 봤을 때 멋쟁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엄하민] 나는 이 사회를 아직 사회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약간 그러거든. 내가 멋쟁이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어떤 일이 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 강해지고, 나를 잘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쟁이학교를 추천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할 것 같아.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끼리 생활하면서 배우잖아. 많이 관계 속에서. 그런 면에서 추천을 할 것 같아.

위 내용은 기대연 학생기자단 활동 중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운 겨울 우리의 몸을 녹여주며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차를 함께 마시던 휴게실이 없어졌습니다. 아장 아장 걷는 아이들부터 몸은 컸지만 아직 뺨을 스치는 바람이 좋은 아이들이 자주 찾던 자전거 거치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뜯으면서 이 건물은 이렇게 올렸구나 공부도 되고 이 부분은 불이 났다가 다시 덮은 부분, 여기는 썩어서 다시 보강한 부분이라며 한군데 한군데 다시 보게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이야기들이 있고 추억이 묻어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무 하나를 뜯을 때 추억 하나를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이 건물들을 해체할 때 바쁜 매일의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로 백신접종을 받는 식구들이 꽤 되다보니 몸이 안 좋아 못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멧쟁이학교는 면담기간이어서 면담준비와 학부모면담으로 못나오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누군가가 못나왔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단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며 서로 이해합니다. 이른 아침 해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 함께 모여 일을 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일하느라 답답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서로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일합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함께 나누는 정이 오고갑니다. 며칠사이 건물들은 사라지고 이제 터만 남은 곳을 보니 새롭게 어떤 추억들이 생겨날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에 공화전도사님 가정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을 보여주듯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물건들,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없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놔둔 채 떠나셨습니다. 새벽같이 움직이셨는데 배웅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중국 생활을 하실 때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시길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을 뜨든 건물을 뜯든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배웅을 하든 식사를 하든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어 힘이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성찬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예레미야서 29:12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현재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고 공산주의 안에서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오두막공동체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공화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공화전도사님 가정이 중국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중국생활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가정이 믿음안에 굳게 서도록, 노아 선아 루아가 언어적 어려움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더운 한낮을 피해서 아침 일찍부터 야외 휴게실과 자전거 거치대 철거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운동장 한켠을 옹벽으로 두르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멧쟁이학교 학부모 면담이 계속 있었고, 주말에는 여름공동체생활 마지막 주일에 있을 성찬세트를 만드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 몸, 한 공동체를 고백하는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 성찬세트를 준비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성찬세트와 먹을 거리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여름공동체 마지막날 강강술래 하고난 후에는 언제나 수박을 먹었기에, 이번에는 수박주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애찬의 의미로 약식을 준비하였고, 밭에서 난 토마토와 참외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방장들이 흠어져있는 사랑방의 식구들에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직접 배송을 다녀왔는데, 이렇게라도 잠깐 얼굴을 마주대하니 서로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와 성찬식 가운데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